즉시 배포용: 2020년 12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이 다음 주에 연장된 연방 실업 수당을 받기 시작한다고 발표

사전 준비 덕분에 뉴욕주는 지연 없이 연장된 실업 수당을 전달할 수 있어

*실업자 뉴욕 주민들은 **1**월 **3**일 주부터 추가로 **300**달러의 주간 보조 및 연장된 팬데믹 실업 지원 또는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을 받을 예정*

실업자 뉴욕 주민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계속적인 인증 필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실업자인 뉴욕 주민이 다음 주에 연장 및 확장된 연방 실업 수당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첫 주에는 연방법에 따라 이러한 혜택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연방 정부가 최종적으로 2020년 말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었던 코로나바이러스 구조, 구제, 경제 안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법에 포함 된 실업 프로그램을 연장하기위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의 사전 작업으로 인해 즉시 이러한 수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프로그램에는 전통적인 주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팬데믹 실업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개인이 26주 주 실업 보험을 소모한 후 추가 수당을 제공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실업 수당을 받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추가로 300달러를 주마다 지급하는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전례없는 경제 위기를 만들어 냈고, 뉴욕 주민은 너무 오랫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기다려 왔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수백만 명의 실업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혜택을 갱신함으로써 옳은 일을 수행하도록 연방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마침내 행동했으니 뉴욕은 즉시 그 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뉴욕은 연방 실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서 국가를 선도했으며, 이번 겨울 우리는 다시 한 번 가장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에게 기금을 전달하도록 신속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 14일까지 추가로 11주 동안 연방 실업 수당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뉴욕 주민들은 이러한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방식으로 실업 수당을 위해 증명해야 하며 자동으로 연장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연도가 종료된 분은 온라인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이러한 연장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팬데믹 실업 지원** - 뉴욕 주민들은 이제 팬데믹 실업 지원 수당을 최대 57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월 3일에 종료되는 것에서 2021년 3월 14일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팬데믹 실업 지원을 받는 뉴욕 주민은 평소와 같이 계속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31일부터 추가 자격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추가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할 것입니다.
-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 - 뉴욕 주민은 이제 2021년 3월 14일까지 연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을 최대 24주간(봄에 원래 승인된 13주에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26주의 주 실업 보험을 소진한 뉴욕 주민은 평소와 같이 계속 인증해야하며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을 최대 24주까지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이전에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 13주를 소진하고 연장 수당(Extended Benefits, EB)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개인은 연장 수당 혜택을 소진한 후 연장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 수당을 받기 시작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전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 - 뉴욕 주민의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 수당은 2021년 1월 3일 종료 시부터 재개되어 11주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통적인 주 실업 보험, 공유 작업 수당(Shared Work Benefits),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 연장 수당 또는 팬데믹 실업 지원을 포함하여 실업 수당을 받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지불금이 지급됩니다. 연방 지침에 따라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3일의 종료 후 시작되는 주부터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방 실업 수당의 연장은 많은 뉴욕 주민의 생명선이며, 우리는 이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 기간 동안 390만 명 이상의 실업자 뉴욕 주민들에게 590억 달러 이상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즉, 10개월 동안 약 28년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길 것입니다."

뉴욕 주민은 혼합 소득자 실업 보상(Mixed Earner Unemployment Compensation, MEUC) 프로그램을 통해 주당 100 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합 소득자 실업 보상 수당은 연간 최소 5,000달러의 자영업 소득을 얻었지만 전통적인 주 UI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팬데믹 실업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뉴욕은 혼합 소득자 실업 보상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노동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추가 업데이트 사항은 뉴욕주 노동부 웹사이트 www.labor.ny.gov에 게시됩니다.
실업 상태인 뉴욕 주민은 또한 주의 직업 서비스(Career Services) 리소스 페이지를 이용하여 뉴욕의일자리 검색(Jobs Express) 웹사이트인 labor.ny.gov/jobs에서 주 전역 및 모든 업계의 112,000개 이상의 일자리 게시물을 확인하고, 코세라(Coursera)와 협력한 주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기술을 배우며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모두를 위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FOR ALL) 무료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